(제42권 14호)

종려 주일 예배 순서
THE WORSHIP SERVICE OF PALM SUNDAY

주후 2020년 4월 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2장 "고난받은 주를 보라" (새3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8번 종려주일 (Palm Sunday)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히(Hebrews) 6:13-20**	임소영 집사
설 교 Sermon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What We Have This Hope)**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새48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자주 빼앗겼고,
삶의 문제 앞에서 늘 낙심하며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도,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더 이상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일 2: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개역 **히 6:19-20**)
"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firm and secure. It enters the inner sanctuary behind the curtain, where Jesus, who went before us, has entered on our behalf. He has become a high priest forever, in the order of Melchizedek." (NIV **Hebrews 6:19-2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5 (주일)	4/6 (월)	4/7 (화)	4/8 (수)	4/9 (목)	4/10 (금)	4/11 (토)
본문	레15	레10	레11,12	레13	레14	레15	레16
	시10	시11,12	시13,14	시15,16	시17	시18	시19
	잠24	잠25	잠26	잠27	잠28	잠29	잠30
	살전3	살전4	살전5	살후1	살후2	살후3	딤전1

고/난/주/간/ 특/새	성/금/요/일/ 예/배
고난주간 특새 (4/6월-4/10금 오전6:30)	**주제**: "**회개의 복음**"
성금요일 예배 (4/10금 오후7:30)	"**나의 하나님이여**" (시22:1-8, 17-21)

지난 주일(3/29)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히 6:13-20)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괜찮은 가시나 또는 좀 더 부드러운 엉겅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는 열매를 전혀 맺힐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는 존재로 근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고 미미해도, 지금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끝맺지 않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1)첫째는 사랑의 섬김(Loving Service)이고, 2)둘째는 소망의 풍성함(Full Assurance of Hope)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선한 열매를 결코 기대할 수 없으며, 소망의 풍성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섬김과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날마다 믿음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